강진군청 여자축구 동호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강진군청 여자축구단’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된 축구팀이다.

지난 2005년 12월에 ‘스포츠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강진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여성 공무원들의 여가선양과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됐다. 현재 회원 수는 군청과 읍·면사무소 여직원 등 29명. 단순한 아마추어 축구동호회 차원을 넘어 축구협회에 등록된 팀이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백경자 회장, 문미정, 김선희, 김현주, 김인숙, 김현지, 윤진희, 이만영씨, 김영우 코치, 김금화, 박나연, 박연화, 윤영주, 배정아, 이미란씨.

도발적(?)인 그녀들의 ‘축구사랑’

자치단체 최초 여성공무원 결성
그라운드 누빌땐 우먼파워 배가
강진 스포츠 메카 홍보역할 톡톡

매주 월·수요일 두 차례 일과 후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군 공설운동장에 모여 이용국(위생팀장) 감독과 김영우(세무팀) 전문코치의 지도로 킥 연습과 드리블 등 기본기를 익히는 한편 4 : 1 패스게임, 편을 갈라 20분씩 연습 게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여고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했던 박연화(스포츠기획팀)씨가 지난해 8월 팀에 합류하면서 전력도 탄탄해졌다.

“처음에 업사이드가 뭔지 몰라서 계속 공을 몰고 가서 골을 넣었는데 업사이드라해서 창피했습니다”(김선희·축산팀)

“녹색 그라운드를 누비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애들도 축구교실에 보내는 등 축구 마니아가 됐습니다”(윤진희·투자유치팀)

대다수가 ‘아줌마’인 회원들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틈틈이 기량을 쌓고 있다. 처음에는 ‘여자가 뭔 축구냐?’ 하던 남편들도 축구경기가 열리는 날은 휴가를 내고 응원을 올 정도로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자연스럽게 축구교실에 다니게 됐다. 직장 동료들이 많이 이해해주고, 가족들도 방 청소와 설거지 등을 도와준다.

◇그라운드 누비는 여공무원=회원들은 축구를 시작한 후 자신의 변화로 ‘자신감’을 손꼽는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했다. 또 체력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생각만큼 살은 잘 빠지지 않고 있다는 부연설명이다.

특히 동료 간에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친자매처럼 의지하고 있을 정도로 동료애가 남다르다. 단체경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합하는 마음이 생겨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업무에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니 축구를 통해 가족을 다시금 바라보게 돼 더욱 잘하려는 마음이 배어나고, 상대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게 된다고 한다.

양은희(여성복지팀) 부회장은 “축구는 하면 할수록 힘들지만 푸른 잔디를 누비노라면 힘들고 서운했던 감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한 골’ 넣고 싶다는 마음이 강렬해진다”고 말했다.

강진군청 여자축구 회원들은 자체 훈련을 통해 개인기를 다듬고 타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통해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창단 직후인 2006년 3월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여성부장관배 축구경기에 처녀 출전했을 때는 축구 경기규칙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했지만 상대팀이 배려해 주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에 출전했고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광양에서 열린 제 89회 전국체전 전남도 일반부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체전에 출전하는 11개팀 가운데 동호회 성격을 띤 팀은 강진군청 여성 축구단이 유일했다.

충남 천안의 일화 천마실업팀과 예선 첫 경기로 붙어 아쉽게도 5대 2로 패했다. 상대팀이 전문 실업팀인지라 열심히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그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첫 골’에 목말라했던 터에 2골이나 터지며 회원들의 기쁨은 배가됐고 자부심을 갖게 됐다. 전문 체육인이 아닌데도 전국체전까지 출전하게 돼 회원들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자평했다.

더욱이 지난해 실업팀인 현대제철팀과 경기를 했는데 동호회원들과 나이 차이가 10~20년에 달해 선수들이 ‘이모’나 ‘어머니’로 불러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했다 한다. 지금까지 공식경기에 5차례 참가했다.

◇대망의 목표 ‘1승’=이제 회원들의 바램은 짜릿한 ‘1승’의 기쁨이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열의는 누구보다 강하다. 나아가 축구를 통해 강진을 스포츠 메카로서 다른 지역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강진군은 지난 2006년 봄 천연 잔디구장(3면)과 인조 잔디구장(4면)의 시설을 구비하고 한국여자축구 연맹전 개최 등 굵직한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에 나섰다. 강진은 남해안의 온화한 기후와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으로 매년 수십 개의 외지 팀이 전지 훈련장으로 찾아오고 있다.

이용국(위생팀장) 감독은 “올해는 개인기를 연마하고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경자(교육발전팀) 회장은 “매달 한차례씩 다른 팀과 친선경기를 통해 동호회 기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 1승을 목표로 열심히 푸른 그라운드를 누비고, 스포츠 메카인 강진을 널리 알리는 홍보 우먼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강진=남철희기자 choul@

2008.9.27시행
중앙선관위 (광주/ 전남/ 북)
수석합격
(경쟁률 1064.7:1)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합격을 많이 시킨 학원만이 공무원합격의 Know-How를 안다!!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행정직/ 세무직/ 검찰직/ 법원직/ 소방직/ 경찰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농업직/ 기술직/ 전직종 (독립반 수업)
학원선택은 실적입니다!!
7월 25일 국가직/ 9월 28일 광주/전남지방직 대비 - 8주과정
7급 핵심정리 및 문제풀이
종합반/ 단과반
개강 5월1일
www.hanbitgosi.co.kr
한빛 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234-0234

분 실
골프회원증
No. J01-11-0514
광주C.C
남재희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직통:(062)227-9600
·FAX:(062)227-9500

한라기술의 공기열보일러를 설치하시면?
전기1+공기중 열에너지2+열에너지3
●벙커 C유 대비 70%
●도시가스 대비 65% 절감
●전기보일러 대비 3배의 효율
●한 대의 기계로 냉방, 난방, 온수까지 3배의 효과
◆생산공장, 대중탕, 호텔, 병원, 복지시설, 식당 등
●전국 시,군 대리점 및 딜러 모집합니다.
한라웰스텍(주) 특판사업부 063)838-2231, 010-6794-0094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수시접수중 (종합 및 문제풀이)
경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환영
•수강료 교재 25% D/C
1년과정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환영
•수강료 50% D/C 교재 25% D/C
순경공채
•남 - 1차 : 966명 2차 : 214명
•여 - 1차 : 40명 2차 : 47명
•101단 - 1차 : 120명 2차 : 120명
특채
•전의경 특채 240명
•경찰행정학과 특채 100명
•경찰특공대 특채 38명
※ 종합 1개월 :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 13만원 · 단과 : 9만원
경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www.gmega.co.kr
☎226-5050